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6월 2일 (제1005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 우 컬럼

배움의 끝은 실천!

성경은 읽으라고 있는 책이 아니다. 읽고 깨닫고, 깨달은 대로 행동으로 옮기라고 있는 책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몇 독했다고 자랑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 구절을 읽어도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여쭙는 장면이 나온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되물으셨다. 그 율법사가 당당하게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눅10:28)고 말씀하신다. 율법을 아는 것만으로 족하지 말고, 아는 것을 실천하라고 하신 것이다.

이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난 이야기가 나온다.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갔지만, 사마리아인만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 치료했다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 끝에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이 이어진다. 들던 모든 자들이 답을 알고 있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눅10:37)고 말씀하셨다. 알면 행동하라는 것이다.

배움이 목적이 아니다. 배움이란 목적에 이르는 수단이고 가교일 뿐이다. 성경을 읽고 배운 것을 실천할 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완성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누누이 말했고, 예수님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마7:24)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배움의 끝은 실천이다. 괜히 지식만 키워 머리는 크고, 행함이 없어 다리는 새 다리 같은 가분수형 인간이 되지 말고, 배운 성경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참된 크리스천이 되자.

이초석 목사 목회 35주년 기념 음악회

지난 5월 25일 토요일, 인천예수중심교회에서 제4회 JCC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열렸다. 이 연주회가 더욱 특별했음은 이초석 목사의 목회 35주년 기념 음악회를 겸했기 때문이었다.

이날의 연주는 주로 목회 초창기에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찬양곡으로 연주되었는데, 작사하게 된 배경을 듣자니 진한 감동이 물려왔다. 누가 그랬던가. 명작은 가장 힘들 때 나온다고. 우리 목사의 작시는 예수를 향한 사랑이 가장 뜨거울 때이기도 했지만, 목사님 개인적으로 힘들고 아픈 시절이었을 때 주로 쓰였다.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를 때면 늘 심령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다.

찬양하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앙코르곡은 목사님이 직접 단에 올라 성도들과 함께 ‘Jesus, I love you’를 함께 불렀다. 뉴욕집회에서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본 어느 흑인 목사가 ‘Jesus! Jesus! Jesus!’를 외치며 울부짖는 모습이 목사님의 마음에 꽂혀 직접 곡을 붙인 찬양이다.

신일철 단장 겸 지휘자는 2002년 처음 오케스트라 결성 시절을 회상하며, 목사님 목회 40주년 때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연주회가 끝난 뒤 목사님의 목회 35주년을 기념하는 케이크 커팅식이 있었고, 화환이 전달되었다. 목사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며 이렇게 답사를 하셨다.

남의 소리를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즉 단점을 보완하기보다는 자기의 개성을 살려 장점을 키워나갈 때 인생의 멋진 작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취미처럼 신바람 나는 자기 것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발전시키면 행복한 미래가 약속됩니다. 신발이 맞아야 오래 걸을 수 있지요? 자기에게 맞는 일, 맞는 배필, 맞는 직업을 찾으세요.

그리고 다양한 악기들이 한데 어울려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케스트라입니다. 바이올린 소리만으로도 아름답지만, 이렇게 여러 악기가 함께 어울려 하모니를 이루니 더욱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



이초석 목사 성역 35주년 기념 JCC오케스트라 연주회 (2019년 5월 25일, 인천예수중심교회 대성전)

제주 중문 바닷가, 거센 파도와 맞붙는 바위와 그 파도를 웃음으로 안아주는 모래사장. 사장을 보며 모래처럼 우리를 품어줄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하여 작사한 것이 ‘오 예수여’이다. 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그린 ‘사도의 길’, 예수님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담은 ‘영원한 사랑’, 그리고 전국은 물론이고 세계에 예수의 강풍을 일으키고자 하는 소망을 실은 ‘예수 바람’, 이 모두가 사도로서의 날선 각오와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구구절절 담고 있다. 그리고 근래에 작사하신 ‘길목에서’를 모든 회중이 함께

“나는 오늘 이 연주회를 보면서 ‘노력이라는 무기보다 강한 것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1월부터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음악을 전공한 자들이 아님에도 노력하니까 이렇게 훌륭한 연주를 해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노력하지 않은 것이지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노력이라는 친구와 기도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노력하면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또한 자기 것을 찾는 자가 행복한 자라는 사실도 이 음악을 들으면서 새삼 깨달았습니다. 바이올린이 첼로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플루트가 피아노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리를 내려고 해야지

니다. 나와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도 있음을 인정할 때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를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 오늘 이 음악처럼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와 사회가 이룩될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단장을 비롯한 46명의 단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만 보기 아까우니 서울에서도 한 번 합시다.” 주말 늦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이 음악회를 더욱 빛내주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도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호흡이 있을 때 찬양하자!

찬양이 그친 교회는 죽은 교회다!

신묘수 전도사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대하9:1~9)

복이 복인 줄 알아야 한다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은 외국에까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왕상4:29~31). 그리고 마침내 멀리 아라비아 반도 서남부에 위치한 소왕국 스바 여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확인하고자 먼 길을 불사하고 찾아 나섭니다. 많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아주 진귀한 향품과 엄청난 금과 보석을 싣고 말입니다. 약 1년 정도의 여정을 들고 갔다는 말도 있습니다. 도착해서 실제로 보니 모든 것이 소문이 상이었습니 다. 솔로몬 왕궁의 부강함도 놀랍지만 특히 솔로몬의 지혜는 감탄을 자아낸 정도였습니다. 잠언서나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코자 먼 길을 찾아간 스바 여왕이 솔로몬 앞에 쉬운 문제를 내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꽤나 어려운 문제를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떤 문제든 지혜롭고 시원하게 답을 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의 지혜를 날마다 들을 수 있는 그의 신복들이 복되다며 부러워했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으로다”(대하9:7).

그런데 정말 그의 신복들은 자신들이 복된 줄 알았을까요? 글쎄요, 7절의 말씀처럼 ‘항상’ 들어왔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 ‘그러려니’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사실 저를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서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안수 한 번 받으려고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상담을 받으려고 멀리서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국에 온다고 저를 바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외국 집회 중일 때는 그분들은 적어도 보름 정도는 체류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만나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늘 안수도 받고, 지혜의 말씀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교인들은 그럴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뭐 다 그런 거지’ 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너무 당연해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까무러쳐야 정상이거든요.

복이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복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스바 여왕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긴 솔

로몬보다 우리가 더욱 대단한 존재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유는 솔로몬보다 더 크고, 더 지혜로우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더니와 요나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더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느니라”(마12:41~42).

우리가 예수님이 하
나님의 아들이
심과 우리
의 구원
자가
되



총회장 이초석 목사

심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이 바로 솔로몬보다 더욱 크신 예수님의 영입니다. 물론 솔로몬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에 지혜로웠지만(왕상10:9), 아예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일까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그분께 물으면 인생사 거칠 게 없습니다. 스바 여왕처럼 먼 길을 가야 할 필요도 없고, 바리바리 선물을 싸가지고 가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 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마7:7~8).

물어보면 다 답해주고, 필요한 것을 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혜이든, 물질이든, 병이 낫는 일이든 다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14:14). 솔로몬은 이 땅의 지혜만 말해줬지만,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은 죽음 다음의 세상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책임까지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묻지 않습니까? 왜 구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값비싼 향유를 원하시는 것도, 며칠을 달려가야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닌데 말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보다 크신 이에게 물어봅시다. “성격이 불같아서 자주 화를 내는데 이런 저를 어찌 해야 하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

실 것 입니다. “얘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나는 화내는 자를 좋아하지 않아.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치 않단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아서 네가 수고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쓸어가지(잠27:4). 그러니 네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늘 성령 충만함에 있단다. 성령 충만하면 온유와 사랑과 인내와 절제의 열매가 맺히거든.”

또 물어볼까요? “저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도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답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솔로몬보다 크시며, 지혜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얘야, 자기 것을 찾는 자가 행복하단다. 뱀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가랑이만 찢어져서 아픈 법이야. 민물고기가 너른 바다가 좋다고 나가면 죽는단다. 참새라고 불행하겠니? 남의 집, 남의 아내, 남의 남편, 남의 직장을 좋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내 것을 감사함으로 발전시켜봐. 맞지도 않는 남의 신발을 신

으면 오래 걸을 수 없어. 종지가 장독을 보고 부러워하지만, 사실 장독은 늘 밖에서 태양과 비를 견뎌야 하는 고통이 있단다. 너는 작은 종지지만 주인 밥상에 매일 올라가지 않니? 행복에는 커트라인이 없단다. 네 마음에 달려 있고, 내 것으로 만족할 때 오는 거란다. 이제 알겠니?”

화환을 보지 말고 꽃씨를 보라

“청춘인 저에게도 한 말씀해주세요.” 하고 구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라.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로부터 이뤄지는 법이란다.”라고 말이지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세상의 이치와는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라”(전8:7)고 했지만,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장래 일도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요16:13).

그분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앓은뱅이를 고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은 우리가 아프다며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십니다. 더욱이 고쳐주실 뿐 아니라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사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치게도 하십니다. 예수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가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혜자 솔로몬도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전12).

제발 예수님께 구하세요. 물어보세요.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계시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고, 모든 것이 넘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은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습관화하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도 늘, 무시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힘이 없는 만사행통의 복을 받으시라. 성령과 함께 하는 우리는 정말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충심교회

:: 객원컬럼 ::

연어의 비밀을 아시나요?

어떻게 민물에서 살던 새끼 연어가 파도도 거칠고 짜디짠 바다에 가서도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민물에서 태어난 새끼 연어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신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몸은 더욱 유선형으로 늘씬하게 바뀌고, 비늘 색깔도 은빛으로 변한답니다. 호르몬 활동도 더욱 증가하구요. 게다가 아가미 또한 화학나트륨과 갈륨에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형태가 바뀌어간다고 해요. 이 모두가 바다에서 더 잘 견디고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스몰트화(smoltification)’라고 합니다.
연어의 생애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 곧 스몰트화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스몰트화가 온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어는 잔잔한 파도에도 금세 휩쓸려가고 말지요. 튀는 색깔 때문에 천적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고요. 더구나 염분 등을 견뎌낼 능력이 없으니 먹이사냥은 고사하고 호흡이 달려서 자꾸 헐떡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죽음뿐입니다.
이처럼 민물에 살던 연어는 변화되지 않고서는 바다에 가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동일합니다. 영적 스몰트화가 이뤄지지 않은 영혼이라면 자그마한 시험의 파도에도 휩쓸려가기 십상입니다. 자정능력이 없으니 조금만 힘들어져도 자꾸만 투덜대고 징징거릴 뿐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빠르게 결심하지만 더욱 손쉽게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육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다면 당신은 결코 새로운 환경, 영적전장(戰場)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성장도 열매도 기대할 수 없겠지요?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음을 명심하세요 (벧전5:8). 당신을 넘어뜨리려 하는 마귀의 유혹은 치밀할뿐더러 치명적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합니다(롬8:9).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스몰트화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롬12:2). 어제의 나와 끊임없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고(고전15:31), 세상 유혹을 뿌리치고 죄와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요일3:9)!
바다에 사는 보리새우란 녀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허물을 계속해서 벗어야지만 살 수 있다네요. 그나마 어릴 때는 허물이 부드러워서 자주 허물을 벗는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허물은 딱딱해져가고, 허물을 벗는 기간이 길어져 가면 위급 상황이 발생합니다. 너무 딱딱해져서 더 이상 허물을 벗지 못한 보리새우가 결국 그 허물에 갇혀 서서히 죽어간대네요.
지금 당신은 어떻습니까? 세상 근심과 염려로 딱딱해져가는 심령의 허물을 계속해서 벗어버리고 있나요? 날마다 당신의 믿음에 영적 스몰트화(변화)가 일어나서 세상과 싸워 이길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신현명 목사

:: 세상을 보는 창 ::

위기 때의 동행자

엘리아는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 위기를 맞는다. 엘리아는 당시 영적 리더였고, 하나님의 대언자였지만, 이세벨의 핍박 속에서 그의 에너지는 다 소진되어 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수많은 기적의 체험들도 더 이상 엘리아를 지탱해주지 못했다. 요즘 말로 하면 ‘탈진 증후군’으로 시달린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탈진하여 위기에 처한 엘리아와 어떻게 동행하며 그를 도와주셨는지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은 탈진한 엘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셨다. 천사는 에너지 음료처럼, 잠시 인스턴트의 힘을 얻도록 보낸 것이 아니었고, 새 힘을 공급받아 오뎅이처럼 별떡 일어나서 즉시 사역을 시작하라고도 하지 않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비난을 퍼붓지도 않았다. 천사의 임무는 위기에 처한 엘리아의 조용한 동행자가 되는 것이었다(왕상 19:5~18). 천사의 첫 번째 방문은 엘리아에게 물과 빵을 주며 먹게 하고 폭하게 했다. 두 번째 천사의 방문은 엘리아의 말을 경청하며 먹고 쉬도록 내버려두었다. 세 번째 천사의 방문은 엘리아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자 이제 일어나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가서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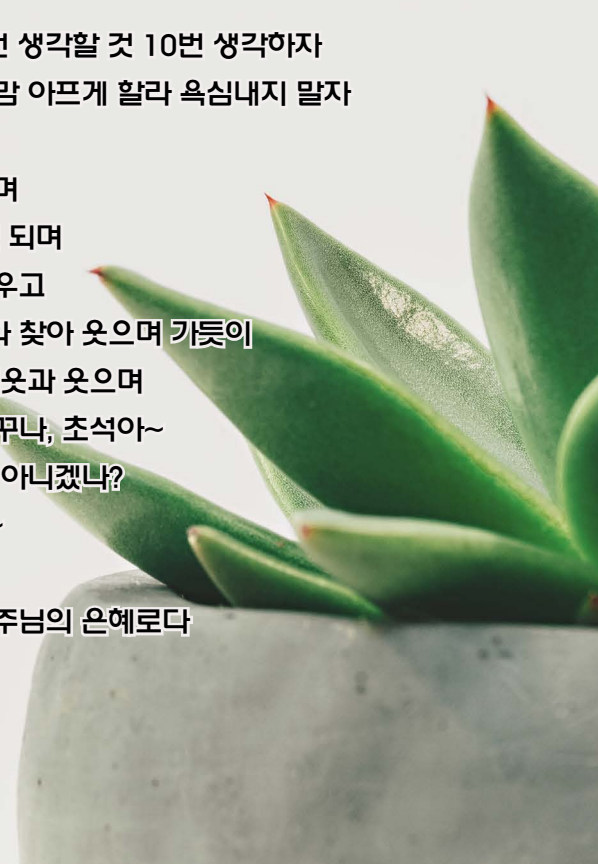
님을 새롭게 만나라고 할 일을 지시해주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위기 상황에서 동행자’의 좋은 모범이다.
위기(crisis)라는 말은 ‘나누다’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 ‘크리나인’(krinein)에서 파생되었다. 그래서 위기를 ‘어려운 상황과 시간 또는 위험한 과정의 정점이나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위기에 처한 사람의 동행자는 경청하고, 함께 있어 주고 해결방안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지고 동행해줄 사람이다. 기도도 못할 만큼 탈진한 그의 손을 잡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고 지원하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무리하게 책임지려고 하지 말 것은,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라 동행자이기 때문이다. 엘리아는 인내로 동행해준 천사 덕분에 다시 새 힘을 얻었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 결국 위기는 엘리아의 삶도, 예언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계자 엘리아를 세우게 되었다.
이정금 전도사

멈추지 않는구나

옛 어른들
세월 이길 장사 없다네
참으로 진리 중 진리다
세월을 요리할 자 그 누군가
내 나이 70 고희(稀壽)라
아~아 세월 참 빠르구나
이제!
모든 일 심사숙고 5번 생각할 것 10번 생각하자
혹시나 노욕에 주님 맘 아프게 할라 욕심내지 말자
남의 맘 아프게 말고
병들고 가난 속에 울며
길 찾는 외로운 자 벗 되며
물줄기 사막에 꽃 피우고
산천초목 살리며 바다 찾아 웃으며 가듯이
내 고향 천국 향해 이웃과 웃으며
손잡고 벗 삼아 가자꾸나, 초석아~
이것이 선한 목자 길 아니겠나?
무엇을 더 바라리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로다

2019. 5. 29. 새벽
朋友 이초석 목사



어느 목회자의 일기

교단의 어느 목회자 때문에 총회장 목사님이 이를 해결하려고 2주 동안 고생하셨다는 설교를 들은 한 목회자가 그의 일기장에 쓴 글이다.
예로부터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했던가? 우리의 부모님들은 고달팠고, 또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았었다. 열 자식 중 유독 부모 속을 썩이는 자식이 있다.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에, 또한 정신 좀 차리라는 마음에, “넘어져 코가 깨져 봐야 저놈이 정신을 차리지!” 하시지만, 그 자식이 넘어져 코가 깨져 들어오는 것을 보시면 심히 속상해하신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 가르쳐주시고 안수해서 사역자로 보내었건만, 제자들이 총회장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큰 종이 되기 전에 깨끗한 종이 되라’는 목사님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가라지도 뽀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뽀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뽀지 아니하고, 단 한 명의 적이라도 만들지 아니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기도의 불을 끄지 아니했다면, 오늘날 예수님과 총회장 목사님 얼굴에 분은 발라주지

못했을지라도 먹칠은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목회, 진실된 목회, 떳떳한 목회를 통해 당당하게 서라는 총회장 목사님의 간절한 바람과 외침! 다섯 번 생각할 것을 열 번 생각하고 말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목회를 이뤄간다면 이 얼마나 좋으랴.
제자들의 그릇된 행실로 인해 마음조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총회장 목사님을 뵈면서 나는 하늘을 향해 다짐하고 다짐한다. “주님! 큰 종이 되기 전에 깨끗하고 청결하고 거룩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존경하는 총회장 목사님! 진실로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기쁜 소식을 듣고 총회장 목사님 발자취를 따라 발자국을 남기려 합니다. 또한 저는 ‘큰 종이 되기 전에 깨끗한 종이 되어라’는 글귀를 원목 명판에 새겨서 책상머리에 걸고 항상 다짐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가르침을 바라오며, 총회장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성공자들의 황금룰이란?



지난 23일, 총회장 목사님은 인천교회 교역자들을 교회 본부 강의실로 집결시켰다. 이는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받은 한 이상 때문이었다. 인천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들어오는 반면, 꽤 많은 성도들이 뒤로 많이 나가는 이상을 보신 것이다. 이에 목사님은 교역자들을 불러 교육하셨다. “성경에 ‘황금룰’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 이는 기독교의 윤리관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로,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며 선지자니라’는 말씀이다. 황금처럼 귀한 윤리의 지침이라는 말씀이다. 기업을 100년 단위로 통계를 내어보았더니 이익만 추구하던 기업은 거의 도산했지만, 신뢰를 파는 기업은 성장 발전했다고 한다. 교회는 충전소이고, 주유소다. 충전소나 주유소에 기름이 넘치는데 찾는 자는 없다. 그 말인즉 다들 힘들고 아프고 부족해서 교회를 찾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교회가 이익을 추구하거나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배나 채우고 있거나, 성도들을 위로하기는 커녕 개 패듯 하고, 상처나 준다면 누가 그 교회를 찾겠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보다 미련하다고 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장사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 친절과 신뢰를 주건만, 교회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아온 성도, 지금 있는 성도들을 잘 대접하고 섬겨야 한다. 내 돈 주고 밥을 사먹는데 맛없고, 불친절한 음식점에서 꼭꼭 참아가며 먹겠는가. 널린 게 음식점인데 말이다. 교회도 많다. 그러니 교역자들이 어찌 행동해야 하겠는가. 늘 말하지만 고객은 물건이 좋아질 때까지, 서비스가 좋아질 때까지 절대 기다리지 않는다. 고객은 냉정하다. 그것을 타할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반성해야 한다. 목회자는 교회의 얼굴이다. 그러므로 품위와 품격이라는 그릇에 예절이라는 음식을 담은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한다.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성도들에게 반말이나 하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며 명령이나 한다면 절대 그 목회자를 따를 성도는 없다. 누차 간증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최고의 음식점에 갔을 때 일이다. 하도 유명하다고 하길래 우리를 영접하는 지배인에

게 이곳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고 물었더니, 그 지배인이 잊지 못할 말을 했다. 이 음식점이 잘하는 것은 웃음을 잃은 종업원을 잘라내는 것이라고. 나는 깜짝 놀랐다. 그 말은 진리다. 웃음을 잃은 사업장, 웃음을 잃은 가정, 더욱이 웃음을 잃은 교회가 부흥할까? 오늘 교육을 계기로 교회의 부흥을 막는 모든 암적 요소를 제거하길 바란다. 나는 어느 목회자를 중국으로 유학 보냈다. 내가 그를 택한 이유는 그의 한마디 말 때문이었다. 그가 말하길 ‘누군가 내 성도를 빼앗아 가면 다윗이 곰이나 사자가 와서 새끼를 물어갈 때 쫓아가서 양을 되찾아오는 심정으로 했다.’고 했다. 그렇다. 여러분도 그런 심정이 되어야 한다. 성도가 떨어져 나가도 그만이고, 빼앗겨도 감각이 없다면 악하고 게으른 자다. 사람들은 도둑놈이 나쁘다고 하지만, 실상은 빼앗긴 사람, 도둑맞은 사람이 더 나쁘다. 왜? 도적이 어느 경첩에 들지 모르는데 파수꾼이 자기의 임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놓고 핑계나 대고 불평불만이나 하고 있다면 되겠는가. 패자 유구무언이다. 여러분은 자원하여 온 자들이다. 본토나 부모나 자녀나 세상의 것을 다 뒤로하고 스스로 좁은 길을 택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자는 종의 개념조차 모르는 자다. 우리는 오직 부르신 자를 위해 살아야 한

다. 주의 종은 죽어서 말하는 법이다. 이제 혁신해야 한다. 혁신(革新)이란 가죽을 벗겨내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기 탈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것으로 다시 입어야 한다. 잘못된 타성, 거저된 것들, 나태함을 모두 벗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를 돌아봐라. 내 교회가, 내 구역이 부흥하지 못한다면 남을 타할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변화되어야 한다. 인천교회는 예수중심교단의 모(母)교회다. 이 부흥의 때를 놓치지 말자. 나는 여러분을 믿는다. 어머니 같은 리더십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해주시기를 바란다. 인천교회가 좁다는 아우성을 듣고 싶다. 하늘나라에 왕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자리는 여러분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사정은 하지 않는다. 다만 충성된 여러분에게 부탁할 뿐이다. 내가 먼저 불이 붙어야 남도 불붙게 할 수 있다. 내가 먼저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갈 때 모든 성도들이 따라올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목사님은 오는 6월 21~23일 인천전도집회 계획도 발표하셨고, 이를 위해 21일 작정기도도 명하셨다. 목사님의 이상대로 하나님은 인천교회의 부흥을 계획하고 계신다. 이 부흥의 바람을 잘 타도록 주의 종들부터 먼저 환골탈퇴 하는 심정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 신묘수 전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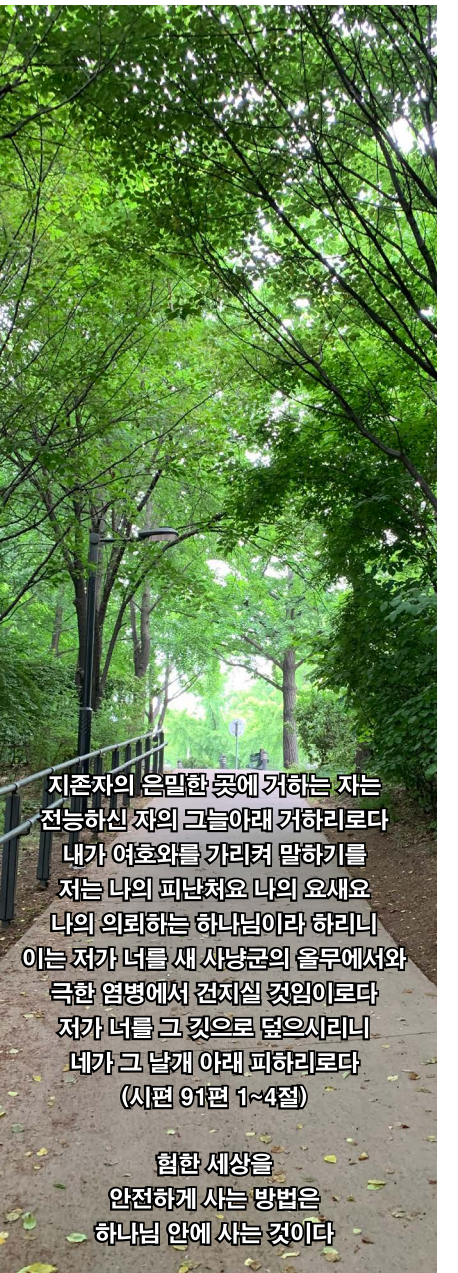
:: 일본에서 온 편지 ::

믿음의 신호등

비 오는 어느 날, 서러움과 괴로움을 토해듯 교회에 와서 펄펄 울며 탄식하던 한 유학생 청년이 있었습니다. 주의 종은 한참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남들 다 하는 알바도 못 구하고, 정말이지 생활도 힘들고 되는 일이 없는 이제 갓 스무 살 쫓내기 청년이었습니다. 주의 종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알바를 구하려고 여러 군데를 다녀서 겨우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에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며 교회 청소 등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십일조도 주님께 드리며 기도마다 응답을 받고 주님을 체험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 바빠지고 알바가 늘어나자 점점 주일도 빠지고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던 주일도 드문드문 출석했습니다. 어느덧 일본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갔고, 더욱 바빠져서 주일에 못 올 때가 더 많았지만, 주의 종은 포기하지 않고 비 오는 그날의 눈물을 꼭 기억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쫓내기 청년은 어엿한 청년이 되었고,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일류호텔에 취직이 되자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며 첫 열매와 십일조를 꼭 하겠다고 종에게 약속했고, 교회 식구 모

두가 축하하며 송별식을 하고 보냈습니다. 그 형제님이 들어간 호텔이 워낙 크고 유명하다 보니 너무 바쁘고 주일도 전혀 쉬 수가 없어서 가끔도 교회를 갈 수가 없게 되자 몸도 마음도 힘들어 그만두고 같이 기도하여 동경 쪽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회사를 다니며 적성에 맞는 곳을 찾기로 하고 옮긴 회사 이름으로 비자를 신청했는데 남들은 다 3년 비자가 나오는데 이 청년만 이민국에서 연락이 없어 초조해하던 어느 날, 신호등 앞에 섰는데 “신호가 빨강입니다.” 하는 소리가 “믿음이 빨강입니다.” 하는 소리로 들렸다고 합니다. 신호는 일어로 ‘신고우’이고 믿음은 ‘신고우’로 읽니다. 이 소리에 “내 믿음이 빨강색으로 스톱되어 있구나.” 하고 깨닫고 기도를 시작하여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자 문제로 기도하던 주의 종의 마음에 ‘약속을 지키라’는 감동이 와서 비자 문제가 불안하니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같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형제님의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하자 비자가 나왔고, 지금은 주일은 물론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 저녁기도와 금요일배도 꼭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근길에 같은 신호등 앞에 섰

데 “신호가 파란색이 되었습니다.”라는 소리가 “신고우(믿음)이 파란색이 되었습니다.”로 들려서 안심을 하고 더욱 열심히 하기로 주님께 약속했다고 합니다. 친구와 함께 살던 셰어하우스를 나와야 해서 기도하며 집을 알아보는데, 주의 종이 기도 중에 “보증금도, 수수료도, 부동산비도, 첫 달 집세도 안 들어가는 준비된 집이 있다.”는 감동을 받고 주일예배 후 형제님에게 전했더니, “어제 평소에 안 다니던 길을 지나다가 우연히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드는 집을 마침 구해서 예배 후에 말씀드리려 했더니 목사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네요.”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신앙을 다지게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며 간증을 하자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층 더 믿음이 성장한 우리 형제님과 이 사건을 눈으로 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강건한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주의 종은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의 회복은 모든 것의 회복이었습니다.” 서동경 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군의 울무에서와
극한 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시편 91편 1~4절)

험한 세상을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다